

“정남진 장흥 물축제, 이것이 달라졌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산업 기반 확장 목표 축제 운영 김성 군수 “물축제, 한단계 진화해 사업화하는 방향 찾을 것”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26일 장흥군에서 개막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장흥 물축제는 글로벌 축제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산업 기반 확장을 목표로 열린다.

“장흥은 지금 즐거움이 팔팔팔!”이란 슬로건은 물축제의 유익적 기능은 물론, 장흥의 물이 가진 치유와 건강의 테마를 상징한다.

올해 물축제는 축제장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같은 목표와 방향성을 반영해 기존 행사에서 진일보한 축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개막식, 공연 프로그램, 글로벌 워터월드 등이 펼쳐지는 주무대는 몰입형 미디어 공간을 만들어 관객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한편, 1만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수용공간을 확보했다.

장흥의 건강한 물, 치유의 물, 장수의 물을 알리기 위해 개막식,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미디어 아트 등의 프로그램의 메인테마를 통일화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특산물의 홍보와 판매, 지역 상권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장흥 특산물과 장흥물을 재료로 한 음료 레시피를 개발해 판매하는 ‘슬러시 페

스타’를 축제기간 내내 주무대 옆에서 운영한다.

슬러시 페스타에서는 해당 음료의 레시피를 공유하고, 원재료 판매부스를 만들어 현장에서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로 시가지 상권을 활용한 ‘물빛 야장, 뽕베용의 날’도 올해 새롭게 선보인다.

8월 1일과 2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열리는 물빛야장은 중앙로 일부 구간의 차량을 통제하고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공간이다.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뽕베용을 주제로, 줄무늬 드레스 코드를 한 방문객에는 전통주 1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로 진행한다. 지난해 축제 피드백을 반영한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과 이벤트 운영도 확대했다.

주무대 옆쪽으로 설치되는 어린이 물놀이장은 슬라이드와 전용 풀장을 만들고 파라솔 테이블 놓아 휴게 공간으로 활용한다.

장흥의 특산물을 조합해 청년들이 선보이는 장흥한우삼합페스타도 축제기간 내내 운영된다.

별빛달빛 청년촌에서 열리는 한우삼합 페스타에서는 즉석에서 조리해 맛볼 수 있는 장흥 특산물 삼합요리를 판매한다.



이곳에는 버스킹 무대를 만들고 관광객들의 쉬어갈 수 있는 추가 테이블을 배치한 휴게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의 물은 관광자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과의 원동력이 되는 자산”이라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한단계 진화해 사업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집중호우로 수해복구가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차분한 분위기로 축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축제를 진행하는 만큼 취소가 어렵지만, 물축제 수익금 전액을 수해 피해 지역에 기부하며 이재민과 이픔을 나누기로 했다. /장흥군 제공

장세일 영광군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현장 찾아 관계자 격려 “골목상권 활력 되살리는 마중물 되길” 기대감 밝혀

영광군 장세일 군수는 7월 22일, 지역 주민들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진행 중인 영광읍사무소를 찾아 현장 점검과 소비쿠폰 지급업무에 힘쓰는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신청 중인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내수활성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대상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지역 내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현장에서 “국민들이 불편 없이 소비쿠폰을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도 9월 초에 지급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고 말했으며, 또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 전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주민들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현장 접수와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고 있으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첫 주를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

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골목상권 및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이희식 기자

화순군, 20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중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3일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향상과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12일까지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신선한 농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월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6월 말 기준 총

84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씩 약 2,7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어 농식품 구매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임신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이다. 소급 지원이 불가하여 대상 가구일 경우 빠른 신청을 권장한다. 화순/김중환 기자

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또는 ARS 전화(1551-0857)로 가능하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신선 농산물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식생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지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군 농가, 지난해보다 5% 더 농기계 빌려갔다

상반기 3,533농가 4,583대 임대... 임대료 감면으로 영농비 절감

영암군의 올해 상반기 농기계 임대 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의 높은 실적을 올렸다. 올해 1~6월 총 3,533농가가 4,583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7,064일 동안 4,078ha 경작한 것.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임대건수가 5% 늘어난 수치이고, 작업면적과 임대농가도 각각 8%, 7% 증가했다. 영암군은 이런 성과가 신규 이용 농가 증가, 영농 현장 고수요 기증 배치, 영농부



산물 파쇄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용곡작기, 관리기, 무선전동가위 등 농업 현장에 필요한 농기계를 배치해 농가의 수요에 대응했다.

나아가 영암군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으로 올해 누적 임대료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 감소했지만, 이용 건수는 증가해 농가 영농비 절감에도 기여했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위기, 인력 부족 등 농업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농기계임대동부사업소가 완공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농기계 임대료를 더 홍보해 농업인들 부족해결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순천시,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정기안전점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 산하 사업장 근로환경과 시민 이용 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사업장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순천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2회 실시하는 정기안전 점검이다. 상반기에는 시 산하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위주로 점

검을 실시해 경미한 사항 등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요 사항은 예산 등을 투입하여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민재해대상 시설물(교량, 터널, 대형건축물 등)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이용 시설의 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

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산재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대책 수립 ▲안전 인력 및 예산 편성 사항 ▲유해 위험 요인 발굴 및 제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교육 ▲종사자의견 청취 등이다.

또한, 시는 정기점검 이외에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 안전점검과 함께 전문업체를 통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도 병행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곡성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추진현황 현장점검 추진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초기 완료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추진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곡성군은 올해 총 157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곡성군은 1차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표지석, 표지판, 마을 간판 등의 설치가 포함된 26개 마을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18개 마을을 추가로 방문해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마을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마을별 여건에 맞는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사업이 단순한 사업 완료 여부를 넘어서, 마을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이경수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살 같은 **알고도 싶은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나보다 원한 사념을 버리고 기쁘게 미소 짓는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인가 **작정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저서**

기어스레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날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불**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야해할 것.**

및 장이나 될까. **색감처럼. 반드시. 이루어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한 것은**

평범적인 **필연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평범한 것은**

미래의 현재가 **가난한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고**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가난한**

좋은 거라면 **가난**

언제나 **우연**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